

젠더지리학을 통해 본 소설의 공간과 장소

- 최은미의 「근린」, 「백 일 동안」을 중심으로 -

김수지* · 김미영**

〈차 례〉

1. 서론
2.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접근
3.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상호 침투
4. 신화적 공간의 상실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젠더지리학의 시각으로 최은미의 단편 「근린」과 「백 일 동안」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젠더지리학은 인본주의 지리학에 젠더의 개념을 추가하여 삶의 양식, 의미부여 등의 차이에 따라 사람이나 장소마다 독특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한다. 개인의 장소 경험과 공간의 의미화 과정에 있어 젠더와 공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문학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은 물론 작품에 투영된 문화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은미의 「근린」은 도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 현상과 현대 사회에서 젠더와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는 사회 체제에 의해 구성된 공간의 해체를 의미한다. 주요 배경인 근린공원의 인물들은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익명성 속에서 모순적인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공간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공간 체제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기존 사회 체제의 부적응자, 이탈자가 늘어날수록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간의 균열은 결국 경계의 와해, 공간의 해체로 이어진다.

「백 일 동안」은 모성 지향의 공간, 달리 표현하면 신화적 공간을 추구하는 한 남성의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강상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 간의 유

* 제1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대감 상실, 애인의 실종 등과 같은 아픔을 간직한 인물이다. 그의 욕망은 어머니와 유일하게 지냈던 시간 ‘백 일’을 전유하기 위해 고향 제이골에 한옥 ‘자미재’를 건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이골이 지닌 여성성과 목재 한옥의 관계, 어머니를 상징하는 자미화 나무의 정결을 훼손한 목수의 배설 행위 등은 주인공이 추구하는 신화적 공간의 완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 제이골이라는 사적 공간의 젠더적 이미지와 남성성을 대표하는 목수의 배설 행위가 주인공의 욕망을 좌절시킨 것이다.

[주제어] 공간, 장소, 인본주의 지리학, 젠더지리학, 최은미, 근린, 익명성, 백 일 동안, 신화적 공간

1. 서론

공간은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건축학자 골드헤이건은 우리의 뇌는 몸을 통해 공간을 감각하고 인지하며 공간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주지하며 ‘체화된 인지¹⁾’를 강조하였다. 공간은 단순히 비어 있는 물리적 단위가 아니며,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태초에 존재했던 자연을 일반적으로 공간이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은 자연을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는 인지의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이 실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간은 보다 다면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구조와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간에 자리한 인간과 복잡다단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맞닿아 있다.

소설에서의 공간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소설의 공간은 시간과 함께 인물이 자리한 환경이자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서사 연구의 흐름을 돌아볼 때 시간에 비하여 공간은 사건 전개 of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서사시학에서 공간은 종종, 시간성의 흐름을 방해하는 묘사로서 제시되거나 혹은 플롯을 위하여 기능하는 정적인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며 혹은 시간 속에

1) 인지란 ‘마음’과 ‘신체’와 ‘환경’, 이 세 요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신체는 단순히 환경이 주는 감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마음이 이를 순차적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저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신체는 내적, 외적 환경을 능동적, ‘상호적’, 의식적, ‘비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세라 윌리엄스 골드헤이건, 『공간 혁명-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 심리학』, 윤제원 역(다산 사이언스, 2019), 111~113면 참조.)

펼쳐지는 서사 사건들의 장면으로서만 제시되었다.²⁾ 그러나 서사가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인간의 삶이 반드시 그가 위치한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사 문학에서 공간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소설의 공간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정적이지도 않고 또한 비어 있지도 않다.³⁾ 소설의 공간은 인물의 활동 반경이며 경험의 장이다. 이 때문에 공간이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설의 공간과 인물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실 소설의 공간은 현실의 재현⁴⁾이며, 소설의 인물은 서사 공간을 인지하는 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문화적 전통과 가치가 축적되는 곳이며, 공간을 체험하는 인물의 경험, 기억과 결부되어 상징적 의미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소설의 공간은 인물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도 한다.

최근 현대 소설은 현대 사회의 공간이 형성, 분할, 중첩, 변화하는 가운데 인간이 소외되거나 잠식되는 등의 부정적인 단면을 포착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공간과 장소의 사회적 의미와 내밀한 개인적 의미를 독특하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최근 의미를 이러한 경향의 작가로 주목할 수 있다. 그는 2008년 『현대문학』에 단편 소설 『울고 간다』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단편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정전』, 장편 소설 『이혼번째 파도』 등은 독특한 형식과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설화적 요소를 차용한 독특한 서사 양식을 취하거나 추리소설적 기법의 토폴로지⁵⁾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인간의 본성과 정념, 집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극적인 삶의 단면들을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 특히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2) 제임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서술이론 I』, 최라영 역(소명출판, 2015), 368면.

3) 제임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같은 책, 375면.

4) 서사가 시간에 따라서 사건들을 재현한 것이라는 내용이 참인 만큼이나, 공간에 따른 재현이기도 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문학과지성사, 2016), 306면.)

5) 『근린』은 ‘재미’를 특성적 기반으로 하는 추리소설기법을 비틀면서 한국인의 ‘이웃 간의 정(情)’이라는 통념을 파편화된 왜곡의 익명성 속에 독특하게 해체한, 대단히 무거운 의미의 단편소설이다. 이 왜곡 속에는 행복, 슬픔, 고통, 공포, 사랑, 이해, 연민, 호기심, 어린이의 실종, 여러 형태의 죽음 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생의 전반적 요소들이 이질적으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여러 시간을 담아내는 하나의 자연 공간, 익명의 공간 그 자체로 녹아들어간다. 이 작품의 내용들을 상당히 낯설게도, 구심력/원심력이 교차하는 방사형의 플롯으로 인물행로를 제시하면서, 근린공원이라는 사건 현장의 공간에 여러 시선들, 시간들을 집중시키는 기법을 펼치고 있다. (이영미·김중희, 『작가의 형식 진화에 관한 소고』, 『비평문학』 63(한국비평문학회, 2017), 94면.)

특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최은미의 「근린」과 「백 일 동안」은 모두 작가의 토폴로지를 강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근린」의 경우는 도시 공간의 내부에서, 그리고 「백 일 동안」은 도시 공간을 벗어난 자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뜻 보기에, 두 작품을 함께 다루는 것이 낯설어 보일 수도 있다. 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분석할 때 전자는 도시 공간의 여성들이 중심이고, 후자는 자연 속의 남성이 중심이어서 서로의 접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더지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작중인물의 젠더에 치중된 논의뿐만 아니라 공간과 장소에 투영된 젠더의 의미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작가가 보여주는 독특한 토폴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린」은 현대 도시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인 ‘공원’에서 익명성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웃들 사이의 모순적 관계, 슬픈 개인사 등을 다루는 작품이며, 「백 일 동안」은 고향의 자연 속에서 은둔자의 삶을 추구하는 퇴임한 남성의 행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두 편 모두 공간과 장소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뚜렷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토폴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은 물론 작품에 투영된 문화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접근

이 장에서는 젠더지리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질리언 로즈와 린다 맥도웰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고, 소설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젠더지리학의 등장 배경이 있기까지의 지리학의 변화과정과 소설 연구와 지리학의 연결 지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시간에 대한 담론은 공간보다 부각된 면이 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담론도 그 기원을 거슬러 가면 고대에까지 이르는 것으로서 근현대 사상에 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간에 비하여 공간이 덜 주목받은 것은 시간이 이동

성, 역동성, 진보성, 변화, 변동과 역사를 나타내는 데 비해, 공간은 비이동성, 정체, 반동성, 정지와 고정, 그리고 견고함을 의미⁶⁾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의 사상에서 주어진 세계는 극복, 탈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근대의 발전은 새로운 공간을 발견, 개척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실존적 문제가 부각된 근현대 사상에서 시간은 공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색의 동기가 되어왔다.

그러나 고대 사상으로 소급하면, 공간의 절대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⁷⁾ 고대 철학에서의 ‘코라(chōra), 토포스(topos)’ 등의 공간에 관한 담론을 살펴볼 때, 근대 이후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 관한 논쟁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이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절대 공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기된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등의 절대 공간론과, 공간의 상대적 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제기된 라이프니츠, 아인슈타인 등의 상대 공간론의 대립 구도는 공간 이해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으로 이어졌다. 공간은 인간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통해 생산되거나 역으로 이를 통제하기도 하는 역동적인 범주⁸⁾라 할 수 있다.

공간에 관한 새로운 담론은 철학, 사회학, 심리학, 지리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에 다시 주목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간에 관한 사회학적 관심은 공간에 관한 사유를 촉구하며, 공간을 둘러싼 사회, 역사,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공간적 배치는 이미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며, ‘사회적 변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로이며,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집합적인 삶의 양상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⁹⁾ 그러므로 공간에 관한 사유가 인간과 삶, 세계에 대한 탐지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 연결지점에서 문학이 하나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문학이 지역과 장소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상호 문화적 대결의 무대이자 사회적 가설의 공간으로 나타¹⁰⁾나고 있기 때문이다.

6) 마르쿠스 슈뢰르,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정인모 외 역(에코리브르, 2010), 21면.

7) 김용석, 『서사철학』(휴머니스트, 2009), 527~528면.

8) 강동수, 『근대의 자연 공간과 인식 공간』, 『철학연구』 116(대한철학회, 2010), 225면.

9)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푸른숲, 2000), 26면.

본고에서는 지리학의 방법론으로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이는 문학에서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적 시도들과 무관하지 않다. 한 예로 최근 문학에서의 공간 논의에 있어 인본주의 지리학¹²⁾에서 파생된 문학지리학의 방법론을 적용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삶의 양식, 의미 부여 등의 차이에 따라 사람이나 장소마다 독특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¹³⁾이다. 사회적 공간의 생성과 변화는 지리적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학의 공간에 대한 인본주의 지리학적 접근은 문학적 재현으로서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살피고, 지리적 공간과 문학적 공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유의미한 방법론이 된다. 이는 사회문화론적 맥락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존의 문학 연구 방법론과도 맞닿아 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개념은 그 사회의 구조는 물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 아니 삶의 양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건을 이루기 때문이다.¹⁴⁾

젠더지리학은 기존의 지리학이 남성중심적임을 비판한다. 사회적 공간의 체계와 구성이 가부장적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에 따라 장소에 대한 인지와 경험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젠더지리학의 특수한 목표는 젠더 구분과 공간적 구분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드러내고 여기에 도전하는 것

10) 하르트무트 뫼비 · 클라우스 셰르페, 『문학과 문화학』, 오성균 · 남완석 · 윤미애 · 이노은 · 이소영 · 이재원 · 이재황 · 정향균 · 최영진 · 최윤영 역(한울아카데미, 2008), 87면.

11) 이 글에서 '공간'과 '장소'의 용어 쓰임에 대해 간략히 밝힘으로써 이후 기술할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소설에서 시간과 함께 공간이 구성 요소인 배경을 이루는 것과 같이 문학에서는 장소가 아닌 공간을 주된 용어로 사용해 왔다. 한편 지리학에서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온바 해당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학에서 공간은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인 반면, 장소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담는 것으로 주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고는 지리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소설을 분석하는 문학 연구로서 지리학과 문학을 접목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리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되, 문학에서의 공간을 언급할 때 장소보다 공간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공간으로 지시할 것이다.

12) 공간은 역사와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이며 최근에 와서 공간의 지리학적 이론들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임스 켈란 · 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앞의 책 374~375면.)

13) 한국문학역사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학의 이해』(푸른길, 2013), 17~18면 참조.

14) 이진경, 앞의 책, 28~29면.

이며, 이 두 가지의 상호적인 구성을 밝히고 이러한 구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을 문제시하는 것이다.¹⁵⁾ 젠더지리학은 ‘공적-사적, 바깥-안, 직장-가정, 일-여가’ 등의 이분법이 ‘남성-여성’이라는 젠더 구분에 결부되어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져 왔음을 비판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학문인 것이다.

질리언 로즈는 지리학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비판하며 기존의 지리학에 내재된 남성중심성을 사회적·과학적 남성중심성과 미학적 남성중심성이라고 보았다. 사회적·과학적 남성중심성은 여성을 비롯한 타자에 대한 모든 언급을 억압하고 총체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체의 감정, 경험은 철저히 배제되며 몸은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이동 경로와 동일시되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대치된다. 이와 같이 몸을 겹침이 없는 개별화된 경로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남성주의, 즉 몸에 대한 억압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시각에서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른과 아이 모두 보편적 행위자로 일반화된다. 미학적 남성중심성은 타자를 인정하고 인간의 경험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강조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모든 여성을 전형적 여성상으로 일반화하고 장소를 여성적 타자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을 제거한다. 질리언 로즈는 남성중심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비전형적 여성성을 복원함으로써 기존의 이원적 논리를 해체하고자 한다. 그는 지리학적 지식인 공간을 불안정하며 변화하고 불확실하며 견고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간을 살살이 파악하고 점유하고자 하는 지리학적 욕망과 그 욕망에 의해 희생되고 주변화된 자들의 저항이라는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공간은 해체¹⁷⁾되기 마련이며 공간의 해체는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와 같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페미니즘과 결합한 지리학을 보인 것이다.

린다 맥도웰은 젠더 구분과 공간 구분의 관계를 탐구하고 장소성과 탈장소의 경험이 젠더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 기존의 지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집’은 안정과 행복, 편안함, 애착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젠더지리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이데올로기적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이 공적인, 바깥의, 일하는 공간에 속할

15)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한울, 2010), 38~39면.

16)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한길사, 2011), 94면.

17) 질리언 로즈, 같은 책, 358면.

때 여성은 사적인, 내부의, 가정이라는 공간에 속한다. 근대 이후에도 여성에게 집 밖의 공간은 정원 등 여가를 위한 일부 공간에 제한되었으며, 여전히 여성들에게 집은 고단하고 억압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젠더지리학적 관점은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사회적 통념을 해체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간의 다층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공간 담론을 확장하였다.

3.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상호 침투

소설에 형상화된 공간은 서사의 미적 형식을 구성하고 서사 지각¹⁸⁾을 자극하는 기제가 된다. 최은미의 소설 『근린』에서 공간은 주요 장소들의 분리와 결합, 중첩의 형태로 그려지며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근린공원 내부의 ‘공원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부채꼴 광장’, 근린공원 사거리의 ‘주유소,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독서실, 피시방, 학원, 노인요양원, 관절척추병원’ 그리고 병원 앞의 ‘키다리 허수아비 풍선’에 이르기까지 서술자의 시선을 따라 주변 경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각 지점은 별개의 개체로 존재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 작품은 근린공원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에 관한 사건을 근린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여러 시선으로 보여주며 그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힘은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죽음의 진실이다. 추리소설의 기법을 활용한 서사 전개는 자연스럽게 독자의 추론을 유도하지만, 일반적인 추리소설과는 다르게 결말에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 가지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이 일어난 공간인 근린공원의 성격과 의미부터 살펴보자.

근린공원은 대체로 일반인들의 거주 영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도 근린공원은 아파트와 각종 편의시설,

18) 우리의 서사 지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적이기에 도저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조차 하나의 틀이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상 서사를 통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포터 에벗, 앞의 책, 33면)

그리고 도로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복판에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도시 공간에는 공적/사적 영역¹⁹⁾이 공존하므로 도시 공간의 이해는 영역의 경계가 어떻게 확보되며 구분 지어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²⁰⁾로 이해되는 것은 익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근린공원 역시 철저하게 익명적인 공간으로 존재한다. 근린공원은 시민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장소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공동 경험이 축적된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 경험이 반드시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의 경험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근린(近隣)’이라는 단어에 ‘이웃 간의 정’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표면화하였지만 공적 영역에 속하는 근린공원의 익명성에 의해 ‘이웃 간의 정’이라는 정서는 해체되고 있다.

이런 성격의 근린공원에서 세 유형의 죽음이 발생한다. 먼저 작품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무인정찰기의 추락사건에 의한 죽음이다. 근린공원 등산로에 추락한 무인정찰기의 파편에 의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는 ‘그 여자’로만 표현되었다. 또 다른 죽음은 근린공원 인근의 요양원에서 탈출한 노년 커플의 죽음이고, 마지막은 어린이의 죽음이다.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세 유형의 죽음은 개별적이면서도 서로 얽혀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사망자들이 근린공원을 놀상 찾은 주민들 중에 있으며, 그들의 죽음이 주민들의 행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근린공원을 찾아오는 핵심인물은 여섯 명의 익명으로 설정된 여성들이다. 벤치에 늘 나란히 앉는 세 여성인 꿈을 판 여자, 가운데 여자, 꿈을 산 여자가 있다. 이 늙은 여성들은 매일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르신문화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음에는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잔다. 또 다른 여성은 강아지 시추와 산책하는 ‘중년여성’이다. 이 여성은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노인 요양원 창문을 통해 어머니를 쳐다보는 것이 일상이다. 마지막으로 아이 엄마가 있다.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여성은 밝고 명랑한 아이와 달리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해 보인다.

19)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261면 참조.

20) 마르쿠스 슈뢰르, 같은 책, 275면.

이 여섯 명의 여자들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을 아우르고 있다. 기실 어린 여자아이까지 포함하면 일곱 명의 여성이 된다. 이들에게 죽음은 누구나 갑자기 직면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무인정찰기의 추락으로 우연히 죽어야 하는 ‘그 여자’, 중년여성의 어머니로 드러난 요양원 노년 커플의 동반 자살, 그리고 실종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비속살해로 죽은 어린이 등 죽음은 곳곳에 매복해 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적 슬픔에 대하여 서로 무관심하다.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근린공원의 개방성이 소문을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익명성의 강도 때문에 개인적 유대감, 친밀감은 희석되고 만다. 그래서 요양원 커플에 대한 이야기는 근린공원 안에서 “신화처럼 떠돌” 뿐, 공원을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소문 당사자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에서 만나는 여자아이와 엄마의 신경질적인 태도 속에 감추어진 모성애를 알 수 없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익명성에서 오는 안전을 추구할 뿐이다.

근린공원에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엄마의 비속살해라는 진실은 그 뒤에 숨어 있다. 아이 엄마의 고통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 않으나 남편과 결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 짐작 가능할 뿐이다.

여자는 낙엽밭에 아이를 놓았다. 아이 몸에는 아직도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곧 따라갈게, 여자는 중얼거렸다. 비에 젖은 낙엽들은 여자가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배네티블 같았다. 여자는 아이의 몸 위에 한 겹 한 겹 이불을 덮어주었다. 다 덮고 나면 아이 옆 참나무 가지에 목을 맬 생각이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다.

여자가 지금껏 죽지 못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엄마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이의 일상과 일생에 대해서 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다. 아이에게는 자살한 여자의 딸이라는 오명과 상처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천덕꾸러기처럼 크다가 남자 사촌이나 삼촌 들한테 몸을 짓을 당할 수도 있었다. 여자가 이는 세상은 그랬다.²¹⁾

21) 최은미, 『근린』, 『목련정전』(문학과 지성사, 2015), 153면. 이후의 인용문은 작품명과 면수만 기재한다.

여자아이의 엄마는 겉으로는 아이에게 거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속으로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동반자살을 계획한다.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삶의 조건들이 평탄치 않음을 알기에 함께 죽고자 하지만 그녀는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 함께 죽으려던 여자 근처의 정자 옆에서 벌어지는 요양원 커플의 정사 때문이다.

또 다른 죽음은 요양원 커플의 죽음이다. 요양원 커플은 합방을 바랐으나 그들의 요구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요양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금자리로서 기능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요양원 커플은 요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난 마지막 죽음은 무인정찰기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사망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 앞에 누구라도 사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김 뿐이다.

이 소설은 무인 비행기가 추락하여 근린공원에 있던 한 여자(‘그 여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찰나적 시간에 동일한 곳에 있었던 익명의 인물들의 단편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익명의 공간에 놓인 다수의 현대인에게서 포착되는 ‘죽음’의 여러 양상들을 상당히 조밀하게 ‘죽-인’해 가면서 독자에게 이 수수께끼의 확정할 수 없는 정답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성’ 속에서 자신들의 은닉된 민낯을 보게 되고, 이웃들과 지녀왔던 모순적 관계, 그 이면의 구조적 범죄성을 직시²²⁾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근린공원이 여성들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에게 허용된 공적 공간이 정원 등의 일부 사교적 공간에 한정되었던 젠더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활동이 수행 가능한 공적 공간을 남성의 공간으로, 이와 대비되는 사적이고 가정적인 공간을 여성의 공간으로 양분하였던 정치학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²³⁾ 작품 내의 여성 인물들의 생활 배경은 자신의 거주 공간과 근린공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적 공간에서의 인물의 행위와 경험은 사적 공간인 집에서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한편 근린공원이 여성 인물들에게 주는 의미와 남성 인물에게 주는 의미는 다르

22) 이영미·김종희, 앞의 글, 95면.

23) 질리언 로즈, 앞의 책, 99면 참조.

게 나타난다. 작품에 등장하는 젊은 남자인 ‘맥도날드 라이더’는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 등 도시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인 파수관으로서 일을 한다. 그에게 도시는 사회적 활동 반경이다. 그에게는 근린공원, 도로, 아파트 단지과 같은 개방된 곳뿐만 아니라 내밀한 공간인 개인의 집안까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지가 된다. 그는 ‘2주 넘게 매일 배달 주문을 하는 집’을 ‘특이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배달을 위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주인 여자의 인상이나 거실 풍경을 훑어보며 파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이더는 축이 좋은 형사라도 된 듯한 긴장을 느끼며 마을파수관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마을파수관은 시에서 성실한 배달 청년들에게 준 직책이었다. 파수관의 임무는 ‘여성 폭력 현장 감시 및 신고’와 ‘공공시설물 파손 등 생활 안전 위해 요소 신고’였다. 배달 중 그런 현장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라이더는 실제로 시시티브이를 파손하며 다닌 한 사십대 남자를 신고해 우수 파수관으로 선발된 적이 있었다. 라이더는 그때의 뿌듯함을 잊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라이더는 배달 첫날을 되짚어보았다. 여자는 분명 라이더의 왼쪽 가슴에 달린 마을파수관 배지를 유심히 보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의 여자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파수관을 계속 부르는 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근린』, 143면)

라이더의 추론은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가벼운 결론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요양원 노년 커플과 여자아이의 실종으로 근린공원을 수색하는 경찰들에게도 근린공원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무환경일 뿐이다. 경찰은 중년 여자에게 노모를 찾기 위한 수색 일정을 말한 뒤 아이 엄마에게 몇 가지 정황을 묻는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상황을 입에서 입으로 전할 뿐이다. 누군가가 아이를 주택가 쪽에서 찾아야 하지 않냐고 말을 꺼내지만 이는 곧 “경찰이 어련히 알아서 찾으려고”라는 다른 사람의 말에 힘을 잃는다. 이처럼 근린공원이라는 동일한 공간이 인물에 따라, 그리고 젠더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의 장이 된다.²⁴⁾ 그런데 이 소설에서

24) 공간은 서로 다른 집단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니며,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 의해 각각 다른 의미로 전유된다. (린다 맥도웰, 앞의 책, 290면.)

근린공원을 경제적 활동 반경으로 삼는 이들은 일을 하는 젊은 남성에게 한정된다. 남자 노인들은 여자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요양원에 머물고 ‘어르신문화축제’ 공연 연습을 위해 공원을 찾는다. 이는 공간의 의미를 젠더로 구분하는 것이 경계가 모호하고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사회적 관계를 내포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간은 단순히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거나 서로 침투적이며 포개지기도 한다.²⁵⁾ 공간의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간의 의미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그 여자, 꿈을 산 여자, 꿈을 판 여자, 중년 여자, 레깅스 여자, 여자아이 등 추상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지칭된다. 이는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며 이들이 우연일지라도 상대의 정보를 알게 되는 과정은 서로의 공간이 포개지고 서로 침투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근린」에서 보여지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상호 침투는 사회 체제에 의해 구성된 공간의 해체를 의미한다.

4. 신화적 공간의 상실

「백 일 동안」은 모성 지향의 공간, 달리 표현하면 신화적 공간을 추구하는 한 남성의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강상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 간의 유대감 상실, 애인의 실종 등과 같은 아픔을 간직한 인물이다. 그가 지루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퇴직 후 고향에다가 좋은 목재로 지은 한옥과 한 그루의 자미화 나무를 키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집’은 복합적인 의미 구성체이다. 집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비슬라르에 의하면 집이 인간에게 주는 삶의 원초적 감정은 안도감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다.²⁶⁾ 이 작품에서 강상기가 평생을 살던 집(아파트)을 미련 없이 떠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은 그에게 집이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25)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에코리브르, 2014), 148~156면.

26)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에코리브르, 2014), 173면.

그의 욕망은 유일하게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시간인 ‘백 일’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 제이골에 한옥 ‘자미재’를 건축하는 것이다. 먼저, 작품 도입부에 나온 고향의 묘사를 살펴보자.

마을로 들어서면 여섯 개의 산봉우리가 보였다. 산들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서 솟아나 마을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다. 봉우리들은 해발 5백 미터가 조금 넘었다. 공기도 구름도 그 위로 잘 넘어다나지 못했다. 마을은 바람이 없고 안개가 많았다. 산 경사면에서 미끄러진 공기가 밤새 마을을 떠돌다 아침이면 산허리에 하얗게 차올랐다.

제이봉은 마을 제일 안쪽에 있었다. 다른 봉들과 달리 삼부능선쯤에 구릉지가 있었는데 산은 거기서부터 방향을 틀면서 동물의 꼬리처럼 휘어져 내려와 제이봉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었다. 제이봉이 감싸고 있는 그곳은 분지 속의 분지, 골짜기 마을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 할 수 있었다. 거기 제이골에 그의 땅이 있었다.²⁷⁾

고향 ‘제이골’은 여성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골짜기 깊숙이 자리한 제이골의 외양은 여성의 자궁을 떠오르게 한다.

한 인간이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도감을 주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공공의 영역과 분리된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을 때만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²⁸⁾ 공적 세계와 분리된 사적 장소들은 물리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경계지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경계를 존중해주는 장소들이 중요한 이유는 개별성을 표현해주기 때문이다.²⁹⁾ 자신의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또는 사적인 영역을 박탈당한 인간의 삶은 무너진다. 이는 사적 영역의 소유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강상기에게 가족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는 진정한 의미의 집이 아니었다. 강상기가 아파트에서 이십 년을, 그것도 아내가 죽은 뒤 혼자서 삼 년을 버틴 것은 아마도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공간은 개인의 욕

27) 최은미, 『백 일 동안』, 『목련정전』(문학과 지성사, 2015), 230면. 이후의 인용문은 작품명과 면수만 기재한다.

2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176~177면 참조.

29)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1~92면 참조.

망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율과 관습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강상기에게 지난 이십 년은 사회적 요구와 질서에 순응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강상기가 마침내 규제로부터 벗어나기로 마음먹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그의 욕망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강상기에게 자신을 향한 외부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파트로부터의 탈주를 결정한 이후 강상기에게 중요한 것은 “제이폴 그의 땅에 집 한 채를 짓는 것” 그뿐이었다. 자미재는 강상기의 근원적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자 재생과 회복을 꿈꾸는 지향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햇빛이 좋은 산에서 자란 잘 마른 육송으로 지은 집. 모두에게 존경받는 솜씨 좋은 목수를 모셔와 기둥 하나, 보 하나도 정성스럽게 올린 집. 군더더기를 걷어낸 민도리 맞배집에 장식이 없는 세살문을 달 것이다. 대청에 앉으면 제이봉의 팔부 능선썰미 보이도록 서까래의 처마를 잡고 마당에는 백토를 깔아야지. 산돌을 박은 낮은 담으로 마당을 포근히 감싸고, 그는 그 마당에 단 한 그루의 나무만을 심을 생각이었다. (『백일 동안』, 231면)

그는 자미재에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다. 최상의 목재를 구하고, 솜씨 좋은 목수를 모셔오는 것부터 집의 구조와 마당에 심을 꽃나무에 대한 세심한 계획까지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설계한다. 이는 집의 주인으로서, 거주 공간의 주체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가 고향과 자미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거주는 공간 속 임의의 위치에 우연히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와 반대된다.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주한다는 것은 분리된 안전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³⁰⁾ 강상기에게 제이폴은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장소였고, 잠시 그곳을 이탈하였으나 다시 그 뿌리를 내릴 장소로 귀의해야 하는 곳이다. 그곳은 외부와 차단된 사적 영역으로서 그의 은밀한 인생에 대하여 그리움과 동시에 참회를 해야 하는 장소이다. 작가는 강상기의 내밀한

30)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358면.

삶과 자미제에 대한 강렬한 욕망의 이유를 설화처럼 전개하고 있다.

“어느 골짜기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었어. 정말 더운 여름에.”

그랬다. 그가 하려는 건 자신의 어머니 얘기였다. 조모에게 들은 그대로는 아니었다. 조모가 그에게 말해준 건 ‘니 에미가 백 일 된 너를 맡기고 떠났다는 짧은 사실뿐이었다.

“여자는 백 일 동안 아이와 함께 그 골짜기에 머물렀어.” (『백 일 동안』, 245면)

외조모에게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처음 들었던 스무 살 무렵에 그는 혼자서 처음 제이골을 찾았다. 제이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골짜기 한쪽에서 자미화 한 그루만이 자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미화가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누군가 어느 한때 이곳에 머물면서 자미화를 심었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백 일 동안』, 245면)

앞서 말했듯이 강상기는 아내와 딸, 즉 가족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근원적 원인을 파고들면 여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모성에 대한 지향, 첫 남자가 있었던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얘기는 전무하다. 외조모의 이야기에 의하면, 강상기의 어머니는 백 일 된 아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다. 성인이 된 강상기가 집안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자신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어머니를 강상기는 윤색하고 신화화하여 가장 정결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어머니는 차마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백 일 동안 제이골 골짜기에 머문 여성이었고, 어머니가 골짜기 한쪽에 백 일 동안 꽃을 피우는 목백일홍인 자미화를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상기에게 제이골은 어머니 그 자체이며, 고향은 신화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강상기에게 제이골과 자미화 나무는 모성의 상징이며 근원적인 안락함을 주는 장소, 어머니의 자궁으로서의 의미로 이해된다. 강상기가 지으려고 하는 한옥 자미제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뿌리 내리고 싶은 욕망의 실현 대상인 것이다.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

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³¹⁾ 집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장소이다. 도시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던 강상기가 존재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제이폴로 돌아와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실존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이폴이라는 지리적 공간과 어머니가 동일시되는 순간 모성만이 남고 강상기의 어머니의 개별성은 소거된다. 보부아르는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을 자연화하는 것은 여성을 어머니로 ‘영혼화’해서 신비로운 경외감을 자아내게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남성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이상을 본질적 타자로 여성화한다.³²⁾ 강상기는 자신을 외조모에게 맡기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지우고 자신을 풀어 준 ‘백 일’만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개인의 삶은 지워지고 어머니로서의 삶만이 남아 상징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강상기에게 제이폴과 자미화는 어머니의 품으로 회귀하는 근원적 공간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애인 허 주임에 대한 참회까지 첨가되기에 그에게 자미화를 건축하는 일은 일생일대의 과업이 된다. 그는 아내와의 평탄치 못한 결혼 생활에서 부하 직원인 허 주임을 사랑한다. 아내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으나 허 주임은 이성으로서 온전히 사랑한 대상이었다. 그랬기에 자신의 생일날 그녀를 제이폴로 데려가고, 어머니의 분신이라 여겨지는 자미화를 보여준다.

“지금도 나는 흰 종이가 있으면 그런 그림을 그려. 봉우리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거기서도 더 들어간 어떤 골짜기. 그 골짜기엔 마당에 자미화가 피어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지. 그 안에서 젊은 여인이 아기한테 젖을 먹이고 있어. 자미화가 지면 떠나야 하지만 그래도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그들은 즐거워.” (『백 일 동안』, 246면)

거대한 숲 같은 제이폴을 한여름 빛이 조금씩 달구었다. 자라면서 얻어들은 지명과 인상들을 합해 그는 백 일 동안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풍경 하나를 만들어왔다. 자신의 마음속 신화인 그곳에 앉아 강상기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을 꺼내 보이는 중이었다. (『백 일 동안』, 246면)

31)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4~95면 참조.

32) 질리언 로즈, 앞의 책, 150면.

“그 백 일이 끔찍했을 수도 있죠.”

기나긴 생의 여러 날들과 함께 세상 전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만큼은 칼 집처럼 남아서 우주를 떠돌아다닐 것만 같은 때. 강상기에게는 그때가 그랬다. 허 주임한테 그 말을 듣던 순간의 햇빛이 그는 지금도 생생했다. (『백 일 동안』, 246~247면)

그가 자미회를 보여준 유일한 여성은 허 주임이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의 생일날 허 주임과 함께 제이콜을 방문하였고,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과 고향, 어머니에 대한 정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허 주임은 “그 백 일이 끔찍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한다. 그녀가 강상기와 다르게 ‘백 일’의 해석을 한 것은 어머니의 고뇌와 자신의 고뇌가 겹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허 주임은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는 강상기와와의 관계, 둘째 아이의 임신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으로 두 사람은 숲속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허 주임은 실족사를 하게 된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제이봉 산골짜기에서 죽게 만들었고, 제이콜 산비탈에 시신을 둔 채 비겁하게 도망쳤다. 다시 그녀를 찾아갔을 때 이미 허 주임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실종은 실종 사고로 묻혔을 뿐 강상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라도 제이콜에 집착하게 된다. 이때부터 강상기에게 자미회는 어머니의 의미뿐만 아니라 허 주임의 의미까지 덧씌워진다. 강상기의 시각³³⁾에 말미암아 여성은 자연이 되고 자연은 여성이 되³⁴⁾는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여성 인물은 자연화되어 장소의 상징으로 재현된다. 여성이 자연화되는 것은 곧 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모두 제거당한 채 타인의 가치를 재현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다. 콜로드니는 땅은 풍성함과 충만함을 갖춘 어머니의 이미지와 거부할 수 없이 유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는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땅-여성’ 은유는 어머니 품으로의 회귀와 성적 정복을 유도하는 매혹 두 가지 모두를 암묵적으로 함축하는 것이다.³⁵⁾ 이 작품

33) 로즈는 전통적인 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 연구에 대해 시각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는 비판적 견해에 동의한다. 사회와 환경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 ‘경관’이라는 용어가 남성중심주의에 의거한 특정한 관찰 방식을 함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땅-여성’ 은유와 함께 이해하면 자연 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대상화된 여성을 향한 남성적 응시로 치환된다.

34) 질리언 로즈, 앞의 책, 224면.

에서 어머니와 허 주임은 각각 모성성과 여성성을 표상하며, 이는 강상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허 주임이 죽은 이후에 제이콜의 자미재는 강상기에게 지향적 공간이었으나 동시에 왜곡된 공간이며 상실된 공간이었다. 그는 집이 완성되고 나면 허 주임을 찾아 자미화 밑에 묻어주리라는, 그리고 백 일 동안 꽃을 피우는 자미화를 보며 지난 생을 반성하겠노라는 의지를 지녔으나 이러한 애정,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성성에 의해서이다.

앞서 『근린』에서는 근린공원을 오가는 사람 대다수가 여성이었으나 『백 일 동안』에서는 철저히 남성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자미재를 건축하는 과정도 남성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강상기가 처음 원했던 대목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의 부편수로 있었던 배 목수가 자미재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 그를 본 강상기는 그가 탐탁지 않았다.

배 목수는 그의 스승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나무를 만지기보다 동물 사체를 손질하며 사는 사람인 듯 몸에서 진한 향이 났다. 초봄이라 아직 쌀쌀한데도 배 목수는 제이콜에 들어서자 점퍼를 벗었다.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에 있는 듯 없는 듯 근육이 돌아 있었다. 몸에서 나는 향과는 달리 잔잔하게 돌아난 우아한 근육이었다. 대패질 때문이겠지. 강상기는 배 목수의 팔과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백 일 동안』, 234면)

강상기가 배 목수에게 느낀 인상은 강한 남성성이다. ‘우아한 근육’의 몸이라든가 ‘동물 사체’를 손질할 때 풍기는 ‘진한 향’들이 거칠고, 공격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 강상기는 그에게서 나는 “축축한 단백질 냄새, 다른 수컷의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그가 지나간 자리에 소주를 뿌리기도 한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단백질 냄새와 수컷의 누린내는 바로 가장 정결한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냄새인 것이다.

배 목수는 또한 자미재의 완공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이다. 이는 강상기의 가장 큰 욕망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 목수가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제이콜의 특성인 ‘안개’와 목재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최고의 목재로 구입한 금

35) 질리언 로즈, 앞의 책, 247~248면 참조.

강승에 곰팡이가 슬어서 일대 소란이 일어났을 때, 배 목수는 “제이골을 한번 훑더니 코로 습기를 빨아들였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집이라. 만만치 않겠습니다. 축추우욱 한 게.”라는 말을 한다. 이 작품 서두에 묘사된 제이골의 외양에 안개가 많음을 드러내었다. 그 안개가 목재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강상기의 자미재에 대한 집착은 그의 집 상량식 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붕괴된다. 술에 취한 배 목수가 한밤중 요의를 느끼고 배설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자미화 나무 등치였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자미화애다 배 목수가 오줌을 갈기는 것을 목격한 강상기는 매우 분노하고 순간적으로 살의까지 느끼게 된다. 충동적으로 배 목수를 죽이고자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크게 앓는다. 강상기에게 자미화 나무는 곧 어머니였고 허 주임이었다. 가장 순결한 대상인 그들을 상징하는 자미화 나무에 다른 남자가 성기를 들이대고 배설 행위를 한 것은 자미화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그는 자미화에서 진동하는 오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한밤중에 마당가의 호스를 끌어와 물을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한다. 이 채취는 자미화를 겁탈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미재의 완전한 몰락은 서까래와 들보, 기둥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송진 제거에서 비롯하였다. 송진이 스며나오면 이것은 곰팡이를 슬게 하는데 강상기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랩프를 사용하다가 결국 불꽃이 번져 자미재를 불태운다. 제이골의 습한 안개로 인해 목재에서 스며나오는 송진은 제이골의 지리적 환경과 목재 건축물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이골이 지닌 여성성과 목재 한옥의 조화롭지 못한 관계, 자미화의 정결을 훼손한 목수의 배설 행위 등은 주인공이 추구하는 신화적 공간의 완성에 방해가 되었다. 제이골이라는 사적 공간의 젠더적 이미지와 남성성을 대표하는 목수의 배설 행위가 주인공의 욕망을 좌절시킨 것이다. 강상기가 스스로 다 지어진 집을 불태우는 것은 그가 결핍을 채우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설정한 신화적 공간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젠더지리학의 방법론을 빌려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읽어나가 되 인본주의 지리학에서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인본주의 지리학과 젠더 지리학에서 다루는 개념과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법론의 성찰을 요하는 일이다. 젠더지리학이 인본주의 지리학을 포괄하여 기존 지리학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여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인본주의 지리학과 젠더지리학이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본주의 지리학과 젠더지리학은 공간에 대한 주체의 경험과 감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함께 다루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젠더지리학에서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학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근린」은 도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 현상과 현대 사회에서 젠더와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는 사회 체제에 의해 구성된 공간의 해체를 의미한다. 주요 배경인 근린공원의 인물들은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익명성 속에서 모순적인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근린공원을 오가는 사람들 각각의 삶이 분화되고 결합하며 근린공원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사건을 여러 시선으로 보여주며 그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근린공원은 인물의 젠더와 나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의 장으로 작용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공간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하며, 이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공간 체제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기존 사회 체제의 부적응자, 이탈자가 늘어날수록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의 공간은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전유되며, 공간의 경계는 절대적이지 않아 일상에서 쉽게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공간의 균열은 결국 경계의 와해, 공간의 해체로 이어진다.

「백 일 동안」은 모성 지향의 공간,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공간을 추구하는 한 남성의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강상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 간의 유대감 상실, 애인의 실종 등과 같은 아픔을 간직한 인물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인물을 통해 인간이 공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 뿌리

내리지 못한 강상기가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자미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뿌리내리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강상기에게 그의 결혼 생활은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점철된 불행한 시간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는 진정한 의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매개가 되는 제이콜로 돌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에게 자미재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이며, 또한 허 주임이라는 인물에 대한 애정이 투영된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가 자미재에 애정을 쏟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의 욕망이 좌절되는 일련의 과정은 한 인간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한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 인물들이 자연과 동일시되어 대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젠더지리학의 방법론을 빌려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학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 논의가 문학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리학과 문학의 접목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최은미, 『목련정전』, 문학과 지성사, 2015.

2. 국내 논저

강동수, 『근대의 자연 공간과 인식 공간』, 『철학연구』 116, 대한철학회, 2010.

김용석, 『서사철학』, 휴머니스트, 2009.

이영미·김중희, 『작가의 형식 진화에 관한 소고』, 『비평문학』 63, 한국비평문학회, 2017.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0.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와 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한국문학역사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학의 이해』, 푸른길, 2013.

3. 국외 논저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한울, 2010.

마르쿠스 슈뢰르,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정인모 외 역, 에코리브르, 2010.

세라 윌리엄스 골드헤이건 지음, 『공간 혁명 -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 심리학』, 윤제원 역, 다산사이언스, 2019.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4.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에코리브르, 2014.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역, 대운, 2011.

제임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엮음, 『서술이론』 I, 최라영 역, 소명출판, 2015.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역, 문학과지성사, 2016.

하르트무트 비에·클라우스 세르페, 『문학과 문화학』, 오성균·남완석·윤미애·이노은·이소영·이재원·이재황·정항균·최영진·최윤영 역, 한울아카데미, 2008.

A Study on the literary space and place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geography : Focused on a “Geunrin” and “Baeklldongan” by Choi Eunmi

Kim, Su-ji* · Kim, Mi-young**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space and place in Choi Eun-mi’s short stories “Geunrin” and “Baeklldongan”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geography. Gender geography adds the concept of gender to the humanistic geography, explaining the reason and process of having unique attributes in each person or place according to differences in lifestyle, meaning, etc. In the process of personal place experience and space semantics,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space, analyzing the meaning of space in literature and the life of the characters living in it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ulture and the world projected into the work as well as the in-depth appreciation of the work.

“Geunrin” is a work that shows the mutual penetration of the city’s public and private areas and the way people relate to gender and space in modern society. The mutual penetr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s shown in this short story means the dissolution of the space organized by the social system. The figures in the neighborhood park, the main background, are mostly women, maintaining contradictory neighbors in anonymity. Ideology serves to consolidate the boundaries of social space, and those who fail to comply with it become alienated from the social spatial system.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societ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maladjusted to the existing social system increases. The cracks in the space

* first author, Ha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Hanyang University

eventuall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boundary, the disintegration of the space.

“BaekIldongan” is a short story that shows the process of discouraging a man’s desire to pursue a mother-oriented space, otherwise a mythical space. The main character Kang Sang-ki has pain such as longing for his mother, loss of family ties, and disappearance of his lover. His desire is to build a Jamijae in his hometown of Jaeigol to own the 100 days he spent with his mothe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Jaeigol’s femininity and wooden house, and the poop of a carpenter who damaged the chastity of the Jamihwa tree symbolizing his mother, are hindering the completion of the mythical space sought by the main character. A carpenter’s excretory behavior, which represents gender image and masculinity in a private space called Jaeigol, frustrated the main character’s desire.

Keywords : space, place, humanistic geography, gender geography, Choi Eunmi, Geunrin, anonymity, BaekIldongan, mythological space